

한겨울철의 구수한 군밤, 군고구마향기



귀부리 얼어드는 맨잔 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평양시내의 곳곳에서 풍기는 군밤, 군고구마향기가 오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중구역 경림과일남새상점 군고구마매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 러진 껍질사이로 노란 속살을 드러낸 군밤과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군고구마를 받아안고 병글거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펼쳐진 단 군고구마를 맛보고 식구들생각에 한봉지 사두고 간다는 녀성도 있다.

구수하게 풍겨오는 군밤, 군고구마는 밤새에 늙은이들도 걸음을 멈추고 길을 가던 총각도 처녀의 손목을 잡아준다.

《군고구마맛은 언제 보아도 별맛이거던.》

《추운 날에 더운물까지 따라주는 봉사자들의 성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독특한 그 향기에 끌려 따끈한 군밤, 군고구마를 후후 불며 달게 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겨울철 평양의 거리들에 펼쳐진 이채로운 풍경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금당화를 원료로 하는 고려약생산체계확립

공화국의 최첨단고려약공장에서 금당화를 원료로 하는 고려약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효능높은 여러가지 고려약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활성화시키는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금당화의 약리적가치에 대해 주목을 돌리고 금당화를 원료로 하는 고려약 생산체계를 실현하려는 높은 목표를 세웠다.

공장에서는 일군들부터가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공장 종업원들을 평양의학대학원 격교육학부에 입학시키고 실력을 부단히 높였다.

이 과정에 금당화의 생리적 특성에 맞는 비배관리방법도 찾아내고 약리성분들을 깨끗이 추출해낼수 있는 설비도

제작하였다.

또한 추출해낸 금당화엑스를 원료로 하여 여러가지 용도의 제품들을 만들수 있는 배합비율을 찾아내고 금당화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종업원들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하여 효능높은 금당화계열의 고려약들이 나오게 되었다.

천연색채제품인 금당화엑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함량은 은행나무잎이나 콩의 수신패에 달하며 비타민E함량은 소꿉이나 신선한 꿀벌의 수천배에 달한다.

또한 금당화꿀과 금당화면역활성화약도 여러가지 질병 예방과 치료에서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떡국만들기

떡국만들기

떡국은 쪄고기를 넣고 끓이는것이 제격이지만 쪄지 않는 경우에는 닭고기를 대신 쓰기도 하였다.

참대칼로 떡국대를 썰어 락화생모양의 떡으로 떡국을 만들어먹는가 하면 백미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글납작하게 빚어서 국물에 넣고 생떡국을 끓여먹는 등 그 방법은 지방마다 각이하다.

떡국을 만들 때 먼저 백미가루로 떡국대를 만들고 그것을 일정한 크기로 썰어 찬물에 헹군 다음 쪄고기국물이나 닭고기국물에 넣어 3~5분정도 끓인다.

끓인 떡국을 대접에 담고 과, 후추, 깨, 김가루 등을 둔다. 떡국은 맛 좋고 영양가가 높을뿐 아니라 흡수도 잘된다.

본사기자



《민속무용》과 《민족무용》

《민속무용》은 다 같이 해당 민족이 즐겨 추는 무용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뜻을 바로 알고 정확히 써야 한다.

민속무용이 해당 민족의 생활과 풍속을 반영하면서 그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전해져 내려오고있는 무용이라면 민족무용은 인간생활과 풍습, 감정

로 《민속무용》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사람들의 민족적인 행동으로 되기에 《민속무용》으로도 된다.

하지만 모든 《민속무용》이 《민속무용》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오직 《민속적》인것을 반영한 무용만이 《민속무용》으로 된다.

본사기자

이 문물하였다.

무릎을 열어놓은 단지에서 땀이 젖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김을 물물 울리었다.

늙은이의 몸보신에는 그저 뜨끈한 음식이 제일이라면서 늘 시아버지의 밥대접에 원심을 쓰는 안해였다.

《아, 잘 먹었다.》 뜨끈한 땀이 국을 달게 자시는 아버지를 보느라니 안해가 더욱 고와보았다.

안해의 얼굴이 고무면 새



《사람이 늙어서 제일 어려운것은 교직이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돌아간 이후로 전 시아버님이 웃는걸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효과가 불어약처럼 아무리 저희들이 효도를 바친단들 못된 어머니만 못한 법이예요.》

무달은 그 말에 고까왔던 기분이 상하여 사라지고 그때처럼 안해가 돋보이고 어려워보인것은 일제 없었다. 마치도 안해가 다심한 만수이같이 보였다.

그때 무달은 또 다른 자기



로인들을 존경하는 민속풍습 《경로회》(1)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고구려시기 동비홀고을(개성시 서북일대)이 자리잡은 려성강기울의 풍류동마을에서 있는 일이다.

사시절 마을을 모르고 석송산골안에서 홀리내리는 맑은 시냇가 동네의 한복판으로 흐르는 풍치수려한 동네라고 하여 풍류동이라 불리우는 이 마을에 무달이라고 하는 30대의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바야흐로 진봉홍빛 북송아꽃이 만발하고 피꽃새들이 날아에는 좋은 절기에 무달은 아침부터 누렁소 암수 한쌍에 연장을 메워가지고 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늙은 아버지가 따라가는 바람에 무달은 구경꾼의 신세가 되고말았다.

아버지는 예순이 되었지만 아직도 쾌가와 기운이 있어 보살을 흥겹게 드라루며 밭을 보기 좋게 갈아나갔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무달의 눈에는 존경과 효성의 빛이 가득 어렸다.

얼마나 자애롭고 인정많은 아버지인가, 또 아는것은 얼마나 많고...

무달이 알고있는 세상리치에 대한 대부분은 아버지에게서 배운것이었다.

소를 부리는 일만 봐도 그러했다.

아버지는 무달이 잠빠가 굳기 전에 벌레 소를 부리자면 뉘나뉘나해도 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며 일기 쉽게 일 깨워주었다.

소에게는 타고난 부축점이 있다. 몸집이 큰 짐승이 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까닭에 꼴배(1위)며 물배(2위)를 포함해서 4개의 밤주머니가 있는데 꼴배는 엄청나게 큰데다가 원컨으로 치우쳐있다.

그러다보니 누울적에 앞발로 웃몸을 고이면서 꼴배에 부당이 실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다.

어떤 때는 소가 왼쪽으로 넘어질수 있다. 그때 허약한 소들은 제힘으로 일어지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면 육중한 몸뚱이가 원컨으로 치우친 꼴배를 꼭 누르다보니 새김질할 풀이 들어있는 밤주머니가 움직이지 못하여 그안의 나뭇바람이 우아래로 통하지 못하니 질식해서 나중에는 죽을수 있다.

이런 까닭에 소를 부리는 사람은 소가 왼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래서 달구지나 연장을 메운 소는 오른쪽으로만 돌릴수 있도록 소고삐를 오른쪽에 둔것이다.

잘 달리는 팔과 달리 소는 엄청나게 큰 꼴배때문에 동작이 굼뜨다. 그래서 한번

에 많이 먹어서 기운이 세고 성질까지 순하여 부리기에 소만한 짐승이 없다. ... 무달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때 밭을 가는 아버지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리었다.

《와! 와! 정말이 소들말귀를 잘 알아듣는디가. 위치(좋다는 뜻)!》 어느결에 꿩발 하나를 다갈아제긴 아버지는 발머리에서 소를 돌리고있었다.

언제 나왔는지 안해가 발최독의 가래나무아래에서 소리쳤다.

《아버님! 쉬고 하시와요.》 무달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해는 벌써 하늘중천에 올라 있었다.

그러자 시장기가 났다. 이른새벽에 아침을 먹고 나왔으니 배고플만도 하였다.

무달은 뛰어가서 연장에서 소를 때리는 아버지의 일손을 도왔다.

그리고 발머리에 내다놓았던 콩짚을 소에게 가져다주었다.

이윽고 발머리에서 무달은 안해가 퍼놓은 결두리를 앞에 놓고 아버지와 마주앉았다.

《아버님은 이걸 잡수시와요.》

무달은 보자기를 채치고 꺼낸 단지를 아버지앞에 따로 놓아주는 안해를 보고 가슴

가슴때만 하라만 날로 께게 보이는것은 그가 시부모에게 효도가 극진하기때문이다.

침달이지 안해는 효도가 깊은 녀인이었다.

두해전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안해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그전부터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돌아간지 한해가 지난 어느날이었다.

안해는 불속 집에 어머니한분을 모셔오라고 하였다.

그때 무달은 또 다른 자기

라고 믿었던 안해에 대한 믿음이 출지에 무너지는것같았다. 그사이 시아버지가 불편해할새라 각근하게 돌봐드린 안해의 그 모든 효성스러운 행실이 가식이었다 말인가.

사람이란 어려운 일에 다쳐봐야 안했다고 안해가 그런 서론짜리 녀인이라고 생각되자 기분이 참치고말았다.

무달이 입이 쓰지워 말을 못하는데 안해가 진속을 터놓았다.

《어- 맛좋다. 그제 이 뜨끈하게 들어가야 속이 후련해진다디가. 험네 아가! 왜 안색이 좋지 못하느냐?》

그제야 무달은 안해의 얼굴이 전과 달리 화려함을 알아보았다.

안해는 그전부터 시아버지에게는 숨기는것이 없었다.

《아버님, 이차 (우물집) 앞을 지나오는데 그 집 아버님이 마당에 나와 한탄하더군요. 자기같은 늙은이를 물어가는 호랑이는 왜 없느냐고...》

무달은 대뜸 기분이 잡쳐 이마살을 찡그렸다.

또 《우물집》머느리인가. 《우물집》머느리의 델떡은 행실이 또 되살아난 모양이다.

밭살이나 먹는 집의 딸이라고 시집은 첫날부터 시부모를 돌볼데 불손하기 지극인데 지어는 로망했다고까지 역정을 부리는 못된 녀인이었다.

늙은이들은 바로 우리를 낳아키운 부모들이고 우리를 걸음걸음 이끌어온 귀인들이다. 젊은이들한테 힘과 용기가 있다면 늙은이들에게는 깊은 중량이 있다.

조선의 국가상징

국장은 국가의 사명을 체현하고있는 공식적표징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독창적인 구상과 세심한 손길에 태어난 공화국국장은 당고있는 내용과 색채, 구도에서 자주독립국가, 불패의 위력과 통성변형할 공화국의 앞날을 잘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의 국장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을 통하여 공화국이 계승하고있는 혁명전통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인민들의 밝은 앞날을 상징하고있다.

수력발전소와 벼이삭을 통하여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도래하여 더욱더 부강번영해가는 공화국의 찬란한 미래를 뚜렷이 상징하고있다.

국장에 새겨진 벼이삭은 지난날 갖은 천재와 명사, 착취와 압박을 받아오던 인민들

이 토지개혁으로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된 당시의 현실은 물론 농업발전의 밝은 전망을 상징하고있다.

국장의 한가운데 새겨진 수력발전소는 강력한 중공업에 의거하고있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상징하고있는 것으로서 날로 통성변형할 공화국의 찬란한 앞날을 확신

도 내놓았다.

새 조국건설시기에는 《다시 맞는 영광의 날》, 《영광찬란한 자유독립의 길로》, 전쟁시기에는 《진격의 밤》, 《우리 학생들》 등을, 그 이후시기에는 《건설의 노래》, 《천리마의 노래》, 《비날론이야기》, 《농촌으로 가는 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시들을 창작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심으로 평안북도당위원회 기관지 《바른말》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정로》의 편집국장, 《로동신문》의 부주필,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강좌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심으로 평안북도당위원회 기관지 《바른말》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정로》의 편집국장, 《로동신문》의 부주필,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강좌장으로 사업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군작가로 활동하다가 대학에 돌아와 박팔양은 교육사업을 계속하다가 그 이후로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로동기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정도이다.

대개리는 둥글고 입에는 가는 이발이 있다.

척추마디는 38~42개이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가시는 11~12개이며 배지느러미가시는 8~9개이다.

겉면에는 비교적 큰 둥근 비늘이 덮여있다.

온성물고기화석은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화석층에서 온성물고기화석이 나왔다.

온성물고기화석은 길이가 34~45cm이고 높이는 15.5cm

온성물고기화석층은 온성군 향당리에서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산비탈면에 있다.

물고기 화석은 1975년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하세의 세션주층 황록색분사암과 니암층으로 되어 있다.

이 층에서는 조개류, 골뎡이류 등의 화석들도 나왔다.

화석층의 너비는 4m, 길이는 30m이다.

이 화석층에서 온성물고기화석이 나왔다.

온성물고기화석은 길이가 34~45cm이고 높이는 15.5cm

하게 해주고있다.

타원형으로 된 국장의 붉은 띠와 그우에 새겨진 국호를 통하여 일심단결로 승리멸치는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의 국장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인양 밝은 빛을 뿌리며 인민들에게 존엄높고 강대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배가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